‘아카데미 전초전’ 광주관객 선택은

84회 영화상 후보작 속속 개봉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아티스트’

‘디센던트’

‘철의 여인’

‘2월은 아카데미 시즌’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을 안기며 ‘킹스 스피치’의 손을 들어줬던 아카데미가 올해는 어떤 영화를 선택할까?

오는 26일(미국 현지 시간) 수상작을 발표하는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작품들이 속속 관객들을 만난다.

9일 개봉한 ‘워 호스’는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다. 작품상을 포함해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워 호스’는 마이클 모퍼고의 원작 소설 ‘조이’를 고전적 영웅담으로 재해석했다.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데번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난 말 조이와 그의 주인 알버트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그려진다.

같은 날 개봉한 스릴러물 ‘팅커 데일러 솔저 스파이’는 성격파 배우 게리 올드먼이 은퇴한 스파이로 등장, 처음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작품이다. 냉전의 긴장감이 팽팽한 1970년대 영국. 소련 스파이로 의심되는 네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로 각색상과 음악상에도 노미네이트됐다.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는 16일 영화팬들을 만난다.

골든글로브에서 이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평단의 찬사를 이끌어낸 ‘아티스트’는 유성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된 무성영화 스타의 흥망성쇠를 ‘무성영화’라는 장르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무성영화계의 남자 스타와 새롭게 부각된 유성영화계 여자 스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휴고’ 11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대처·마릴린먼로 전기 영화 눈길

남우주연상이 유력한 조지 클루니 주연의 ‘디센던트’도 같은 날 개봉한다. ‘사이드 웨이’의 알렉센더 페인이 메가폰을 잡은 ‘디센던트’는 하와이를 배경으로 가정에 소홀했던 가장이 뒤늦게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가족이야기다.

이변이 없는 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메릴 스트립 주연의 ‘철의 여인’은 23일 개봉한다. 영국 최초 여성 총리 자리에 올라 11년간 최장기 재임기록을 낳았던 마가렛 대처의 삶을 그린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여성이지만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으로 인정받는 대처 수상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 찬사를 받았다.

29일에는 11개 최다부문 후보에 오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휴고’가 개봉한다. 1930년대 파리 기차역에서 시계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고아 소년 휴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앞서 제6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같은날 개봉하는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은 주인공 먼로 역을 맡은 미셸 위리엄스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불변의 섹시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실제 그가 출연한 작품 ‘왕자와 무희’ 조감독과의 숨겨진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한편 ‘댄싱퀸’, ‘부러진 화살’,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한국영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비열한 거리’의 유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강호·이나영이 주연을 맡은 ‘하울링’이 개봉, 아카데미 수상작들과 흥행 대결을 벌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탐진 최씨 가문의 보물

광주박물관 14~4월 1일 기증유물전

‘청자병’

기증은 우리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14~4월 1일 ‘탐진최씨 기증유물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탐진최씨 진사공파 최상규선생이 기증한 유물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탐진최씨 시조인 고려 충신 최사전(崔思全·1067~1139년)의 묘지, 그리고 성지파 종회 등 문중에서 기증한 유물들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 유물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탐진최씨 인물 관련 자료들과 조선시대 향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호구단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치는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토지매매 문서 등 다양하다.

또 이 전시는 탐진최씨의 가계를 알 수 있는 시조에서부터 진사공파 관련 인물,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학문과 생활문화, 호남사림에 큰 영향력을 미친 최부(崔溥)의 생애를 표해록과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됐다.

한편 최사전은 고려시대 임금의 의원을 지낸 명의이자 문신이지만,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사전 묘지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로 인해 반출되어 일본 동경대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반환받은 유물이다. 문의 062-570-705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산이 바라본 강진

강진아트홀 17일부터 박행보 ‘다산-강진’전

‘노랑병아리’

강진아트홀은 오는 17일~3월 1일 금봉 박행보의 수묵 작품을 모은 ‘다산-강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진군의 요청으로 지난 2003년 여름부터 박행보 화백이 ‘다산-강진’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생활과 다산이 쓴 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작가가 직접 현지 답사한 뒤 그림을 그렸다.

다산의 시 ‘애절양’을 내용으로 한 작품에는 앙증맞은 병아리들이 등장하고, 다산이 강진에 유배와 처음 당도한 동문밖 주막집 풍경 등도 화폭에 담겼다.

박행보 화백은 지난 1969년부터 1977년 사이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6회를 기록했고 문화공보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다. 주로 대나무와 모란꽃을 주제 삼았고, 산수화에서도 빼어난 작품을 발표했다. 문의 061-430-576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만나는 시인 김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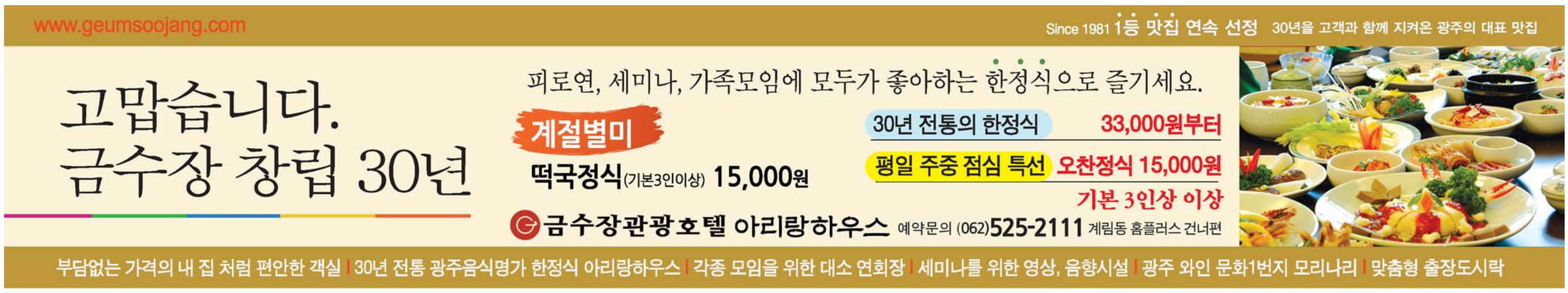
추모사업회, 12일 망월동서 18주기 추모제

통일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김남주(1946~1994년) 시인의 18주기 추모제가 오는 12일 광주시 망월동 구묘역 등지에서 열린다.

김남주추모사업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추모제에는 시인의 지인과 유가족, 문인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5·18기념재단 김준태 이사장의 추모사, 문재남 시인의 추모시 낭송과 김남부 시인의 생전 육성낭송시 듣기, 내벗소리 민족예술단의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문학계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오늘의 문학’에서도 김 시인의 추모제에 맞춰, 오는 13일 김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에서 태어난 김남주 시인은 1974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해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솔직히 말하자’ ‘사상의 거처’ 등의 시집을 냈다. 남민전 활동으로 구속돼 9년 3개월 만에 석방됐지만 지병으로 마흔 아홉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문의 010-8602-29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